

CEO Report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2018. 7

동향분석실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 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CONTENTS

I. 경제·금융시장	1
1. 세계경제	1
2. 국내경제	8
3. 국내금융시장	20
II. 보험시장	26
1. 보험산업 총괄	26
2. 생명보험	28
3. 손해보험	38

I

경제·금융시장

1. 세계경제

- 201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0.6%p 상승한 3.8%를 기록함¹⁾
 - 2017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2016년보다 0.6%p 상승한 2.3%,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0.4%p 상승한 4.8%임
 - 2017년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8%p씩 상승하였고 중국, 유로지역의 경우 각각 0.2%p, 0.6%p 상승함
- 2018년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일본, 중국과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하락함²⁾
 - 1/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수출 및 정부지출의 감소로 2017년 4/4분기보다 0.6%p 하락한 2.3%(연율화)를 기록함
 - 1/4분기 중국 경제는 순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1.4%³⁾ 성장함
 -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일부 국가의 정정불안이 리스크로 작용하여 전분기보다 1.1%p 감소한 1.6%(연율화)를 기록함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4); Eurostat(2018. 5); 일본 내각부(2018. 5); 중국 국가통계국(2018. 4)

3) 중국 데이터는 연율 통계로 측정되지 않아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작성함

- 2018년 1/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 감소 및 수출 증가세 둔화로 전분기 대비 0.2%(연율화) 감소함

■ 표 I-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간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세계 ¹⁾	3.5	3.3	3.4	3.2	3.2	-	-	-	-	3.8	-
선진국 ¹⁾	1.2	1.3	2.0	2.1	1.7	2.3		2.8		2.3	-
신흥국 ¹⁾	5.4	5.1	4.7	4.2	4.4	5.3		5.3		4.8	-
미국 ²⁾	2.2	1.7	2.6	2.9	1.5	1.2	3.1	3.2	2.9	2.3	2.3
중국 ³⁾	7.7	7.7	7.3	7.0	6.7	1.5	1.8	1.8	1.6	6.9	1.4
유로지역 ⁴⁾	-0.9	-0.2	1.3	2.1	1.8	2.6	2.9	2.8	2.7	2.4	1.6
일본 ⁵⁾	1.5	2.0	0.4	1.4	1.0	0.7	0.5	0.5	0.1	1.7	-0.2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 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3)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이나, 중국은 전분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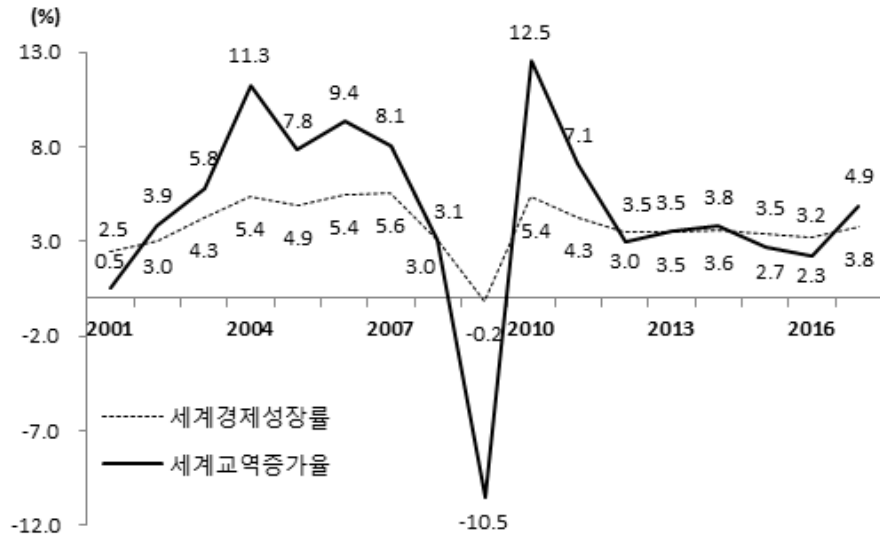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8. 4)

3) 중국 국가통계국(2018. 4)

4) Eurostat(2018. 5)

5) 일본 내각부(2018. 5)

■그림 I-1 세계경제성장률과 교역량 증가율 추이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 4)

☒ 한편, 세계 교역량은 2012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었으나, 2017년 4.9% 증가함

-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상승함

☒ 2017년 국제유가(WTI 기준)는 강세를 지속하여 12월 말 배럴당 60.4달러로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⁴⁾

- IS의 리비아 송유관 폭파 및 미국의 재고 감소 등으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

☒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2017년 12월 말 주요국 주가는 상승하였고 미국 연방정부 섣다운 종료 및 국채금리 상승에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임⁵⁾

4) 오정석(2018. 1),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국제금융센터

5) 국제금융센터(2018. 2), 『국제금융 Inside』

- 미국의 다우지수(+5.9%)는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고
신흥국(브라질 +11.9%, 중국 +4.2%, 인도 +5.4%, 러시아 +9.1%)은
안정적인 원자재가격 강세,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함

■ 2017년 12월 미국의 세제개편안 의회 통과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유럽
주요국의 국채금리도 상승함⁶⁾

- 미국은 세제개편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음
- 반면 일본은행은 경기회복세가 유지되어도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알려져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보임⁷⁾

■ 그림 I-2 미국, 유로, 일본 국채금리(10년물) 추이



자료: Bloomberg

6) 권도현(2017. 12), 『미 세제개편안 통과로 주요국 국채금리 급등』, 국제금융센터

7) 국제금융센터(2018. 1), 『국제금융 Inside』

■ IMF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상향 조정함⁸⁾

- 2018년 4월 발표된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17년 10월 전망치 대비 0.2%p 상향 조정됨
 -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p 상향 조정하였고,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같은 수준으로 유지함
 -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와 신흥국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세계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제개편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임
- 2018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내수수요 증가와 통화정책 등으로 2017년 10월 전망치보다 0.5%p 상향 조정된 2.4%로 전망됨
-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7년 10월 0.7%에서 2018년 4월 1.2%로 상향 조정됨
 - 일본 경제성장률은 수출수요 및 민간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동력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 성장률은 약세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우 수출수요 전망 개선 등을 반영하여 2018년 경제성장률은 6.6%로 전망됨
 - 그러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부채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8) IMF(2017. 4), *World Economic Outlook*

■ 표 I-2 전망기관별 2018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

전망기관	전망시점	세계	선진국	신흥국	미국	유로 지역	일본	중국
IMF	2017. 10	3.7	2.0	4.9	2.3	1.9	0.7	6.5
	2018. 4	3.9	2.5	4.9	2.9	2.4	1.2	6.6
OECD	2017. 11	3.7	-	-	2.5	2.1	1.2	6.6
	2018. 5	3.8	-	-	2.9	2.2	1.2	6.7
World Bank ¹⁾	2017. 6	2.9	1.8	4.5	2.2	1.5	1.0	6.3
	2018. 1	3.1	2.2	4.5	2.5	2.1	1.3	6.4

주: 1) 2010년 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가중치로 평균한 것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OECD Economic Outlook*;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 World Bank는 2018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OECD는 3.8%로 상향 조정하였음

- World Bank는 신흥국 원자재 수출 회복 등으로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나, 보호주의 확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과 같은 장기적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전망함⁹⁾
- OECD는 신흥국 중심의 실업률 개선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¹⁰⁾

☐ 2018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원자재 수출국가의 투자 증가와 선진국 경기 회복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¹¹⁾

-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7년 4.9%에서 2018년 5.1%로 0.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9) World Bank(2018. 1), *Global Economic Prospects*

10) OECD(2018. 5), *OECD Economic Outlook*

11)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 수출 증가율의 경우 선진국은 2017년 4.2%에서 2018년 4.5%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신흥국은 2017년 6.4%에서 2018년 5.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수입 증가율도 선진국은 2017년 4.0%에서 2018년 5.1%로 상승할 것으로, 신흥국은 2017년 6.4%에서 2018년 6.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는 OPEC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감산 합의 연장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월 배럴당 65달러를 기록함

- 배럴당 65달러는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며¹²⁾ OPEC의 원유감산 합의는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세계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채권수익률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¹³⁾

-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며, 유럽 또한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물가상승률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미국 달러화 가치는 무역갈등 고조와 경제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일 것이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¹⁴⁾

- 유로화는 일부 유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선됨에 따라 강세가 예상됨
- 엔화는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12)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13) IMF(2018. 4), *World Economic Outlook*

14) 국제금융센터(2018. 6. 4), 「주요 투자은행 환율전망」

미국과의 무역갈등 우려와 북미 정상회담 전개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위안화는 미국 달러화 강세, 인민은행의 자본통제 완화 등에 따라 약세가 기대됨

■ 표 I-3 주요 투자은행 2018년 환율 전망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3/4	4/4	3/4	4/4	3/4	4/4
중간값	1.21	1.23	109	109	6.38	6.36
평균	1.21	1.23	109	108	6.38	6.39
최고	1.31	1.32	116	120	6.67	6.80
최저	1.10	1.10	101	97	6.20	6.10

주: 주요 투자은행 전망치로 기준일은 2018년 6월 1일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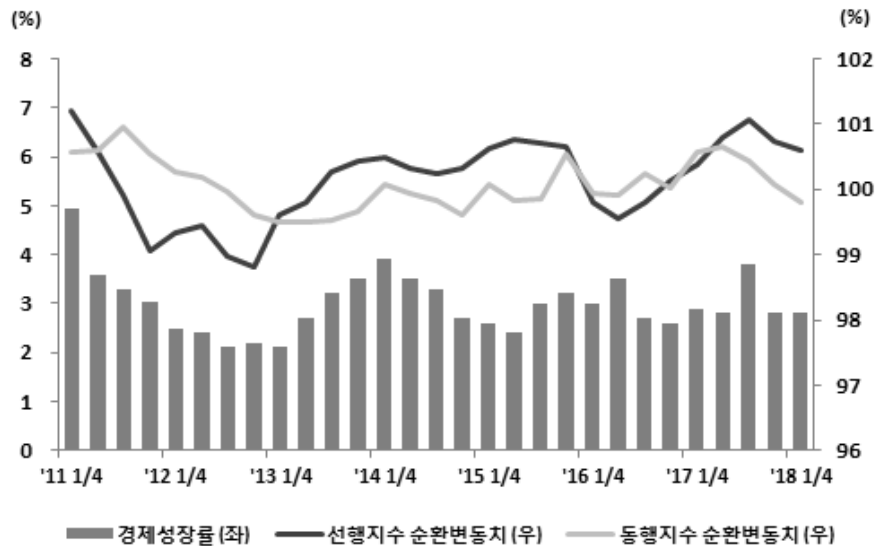
〈성장〉

■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에 확대로 3.1% 증가함

- 2017년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3/4분기에는 순수출이 확대되면서 2017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016년에 비해 0.2%p 상승함
- 2018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설비·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소비와 순수출의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3/4분기 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I-3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건설투자가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 증가세가 내수를 견인함

- 2017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활성화정책 및 고용 확대정책, 환율안정 및 연휴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함
 - 2018년 1/4분기 민간소비는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국외소비 증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함
- 2017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4차산업 관련 수요확대 및 IT업황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7.3% 증가함
- 2017년 건설투자는 착공면적 감소,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건물부문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토목부문의 감소세 확대로 전년 대비 7.6% 증가에 그침
 - 2018년 1/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부문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건설인허가실적 감소 등으로 주택건설부문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에 그침
- 2017년 지식생산물투자는 IT업황 개선 및 신산업부문의 R&D 투자활성화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3.0%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지식생산물투자는 R&D 및 소프트웨어 투자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함
- 2017년 재화수출은 글로벌 IT업황에 따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선박·석유류 등 대부분의 주력품목 수출도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재화수출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량¹⁵⁾도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함
- 2017년 재화수입은 원유·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등으로 인한 원자재·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함
 - 2018년 1/4분기 재화수입은 상품수입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함

15) 수출물량지수(전년동기 대비, %): 2.7(2017. 2/4) → 9.3(3/4) → 2.9(4/4) → 5.8(2018. 1/4)

■ 표 I-4 지출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GDP	2.9	2.9	2.8	3.8	2.8	3.1	2.8
- 민간소비	2.5	2.1	2.4	2.6	3.4	2.6	3.5
- 설비투자	-1.0	16.1	17.9	16.4	8.6	14.6	7.3
- 건설투자	10.3	11.3	8.5	8.0	3.8	7.6	1.8
- 지식생산물투자	3.5	3.2	2.2	2.9	3.5	3.0	3.5
- 재화수출	2.6	3.7	0.3	4.4	-0.6	1.9	1.6
- 재화수입	4.7	10.1	6.6	7.4	4.1	7.0	4.2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 2018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등 우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 및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부채 등¹⁶⁾으로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에 따라 세계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및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의 악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택경기 부진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확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이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16) 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 표 I-5 국내 실물경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F) ¹⁾
실질GDP 성장률	2.8	2.9	3.1	2.8
(명목GDP)	5.3	5.0	5.4	5.7
민간소비	2.2	2.5	2.6	2.6
설비투자	4.7	-1.0	14.6	4.2
건설투자	6.6	10.3	7.6	-0.3
지식생산물투자	1.8	3.5	3.0	3.1
재화수출	-0.1	2.6	1.9	3.2
재화수입	2.1	4.7	7.0	4.5
실업률	3.6	3.7	3.7	3.7
(고용률)	(60.5)	(60.6)	(60.8)	(60.8)
소비자물가	0.7	1.0	1.9	1.7
경상수지	1,059.4	992.4	784.6	707.9
상품수지	1,222.7	1,189.0	1,198.9	1,154.1
상품수출	5,428.8	5,119.5	5,773.8	6,319.4
(증가율)	(-11.4)	(-5.7)	(12.8)	(9.4)
상품수입	4,206.1	3,930.5	4,574.9	5,165.2
(증가율)	(-19.8)	(-6.6)	(16.4)	(12.9)

주: 1) 20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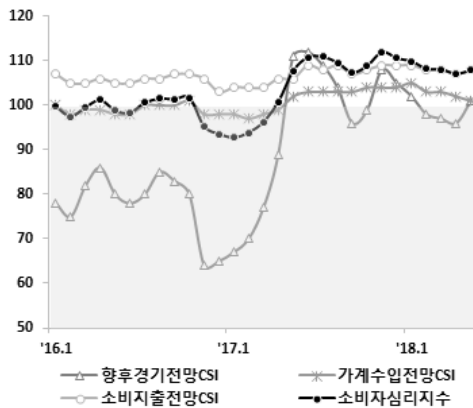
■ 2018년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지연과 가계부채 부담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¹⁷⁾에 대한 기대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전년 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등은 민간소비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17)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비정규직 감축),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아동수당 및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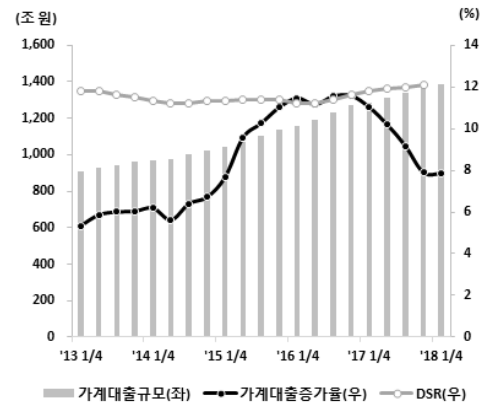
- 한편, 고용시장 개선 지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확대,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에 따른 소비지출 제약 등¹⁸⁾은 민간소비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그림 I-4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I-5 가계대출규모



자료: 한국은행, B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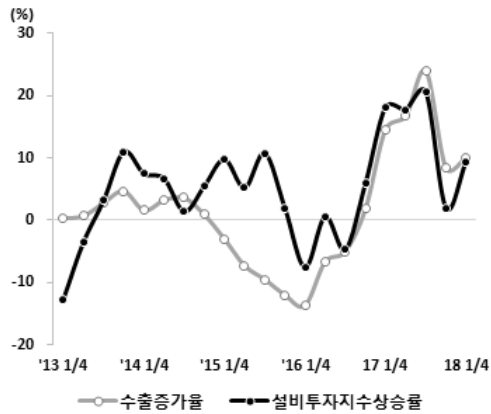
■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제조업 가동률 하락, 글로벌 보호무역 움직임, 전년도 투자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0.4%p 하락한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IT업황 호조 지속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통신,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¹⁹⁾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부채 부담 확대, 중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 체제의 안정화로 인한 경쟁심화 등은 설비투자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18) 기획재정부(2017. 12. 27), 「2018년 경제정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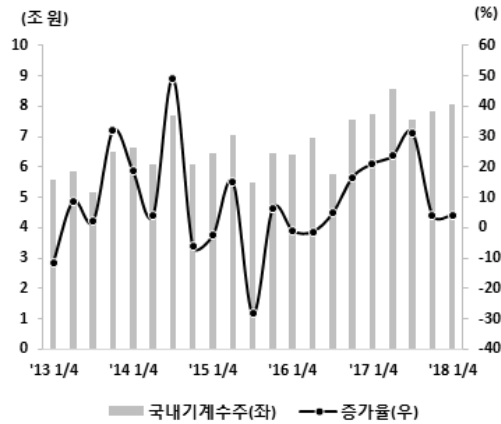
19) 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그림 I-6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율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그림 I-7 국내기계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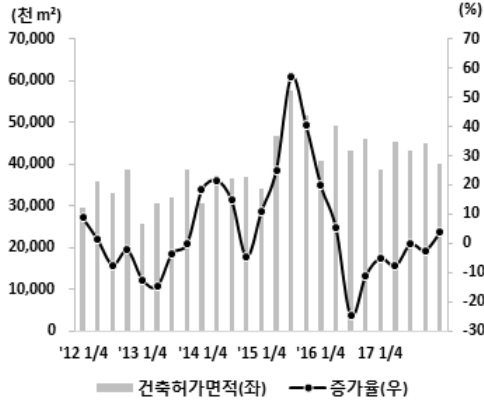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 2018년 건설투자는 신규수주 감소로 인한 건설 경기 둔화, SOC 예산 감축 등으로 인한 토목부문의 부진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이후 건설투자를 주도해 온 대규모 아파트 분양물량의 준공으로 신규수주가 급감하고 상업용 건물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GTX, 세종고속도로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발전소 등 민간토목 부문의 수요 확대 여지가 있으나 SOC 예산 감축에 따른 신규 사업 위축으로 투자 확대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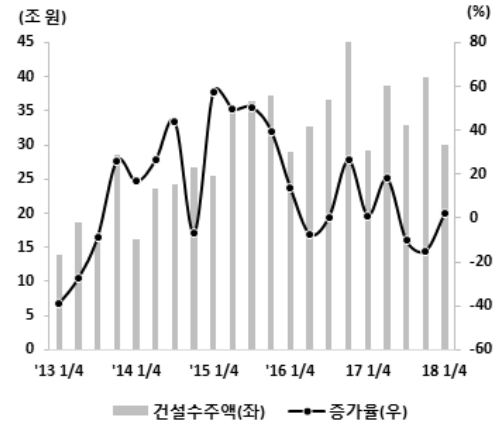
20) LG경제연구원(2018. 5),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

■그림 I-8 건축허가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I-9 건설수주액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8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경우 민간부문 R&D 투자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업 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기업의 R&D 투자 심리²¹⁾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의 R&D 예산 증가세 둔화²²⁾로 투자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IT업황 호조, 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²³⁾

☐ 2018년 재화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회복세 지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어 전년 대비 1.3%p 상승한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단가·물량이

21) R&D투자 심리지수: 102.4('16) → 95.1('17) → 106.0('18)(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22) R&D 예산(조 원): ('15)18.9 ('16)19.1 ('17)19.5

23) 한국은행(2018. 4), 『경제전망보고서』

모두 개선되고 선박·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품목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⁴⁾

- 한편,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재화수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설비투자 증가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용〉

■ 2017년 고용시장은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고용 부진과 하반기 관광객 감소 영향 누적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둔화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임

- 총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만 명(1.2%)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년 대비 0.2%p 상승한 60.8%를 기록하였으나 건설업, 일용직 및 영세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못함
- 2018년 1/4분기 총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8만 명(0.7%)이 증가하여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고용률은 59.6%, 실업률은 4.3%를 기록함

24) 기획재정부(2017. 12), 「2018년 경제정책방향」

■ 표 I-6 고용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8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총취업자	2,641	2,610	2,692	2,700	2,688	2,673	2,628	2,687
(증가율)	(0.9)	(1.4)	(1.4)	(1.0)	(1.0)	(1.2)	(0.7)	(1.1)
고용률	60.6	59.6	61.3	61.4	61.0	60.8	59.6	60.9
실업률	3.7	4.3	3.8	3.4	3.2	3.7	4.3	4.1
경제활동인구	2,742	2,726	2,799	2,796	2,778	2,775	2,746	2,803
(증가율)	(1.0)	(1.4)	(1.5)	(0.9)	(1.0)	(1.2)	(0.7)	(1.0)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8년 고용률과 실업률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조업의 부진 및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각각 60.8%와 3.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일자리 정책,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고용 부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제조업 부진,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력수급 불균형 등이 고용지표 개선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물가〉

■ 2017년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상승압력으로 전년 대비 1.9% 상승함

-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1.9%)이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²⁵⁾ 상승률(1.5%)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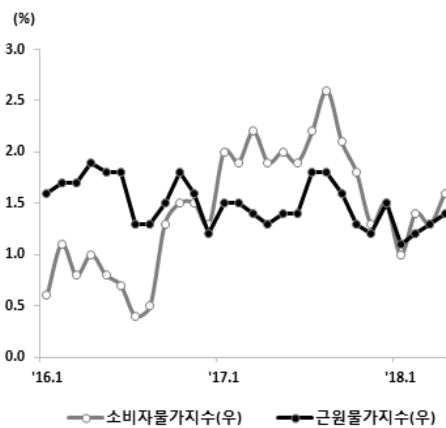
25)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을 제외한 장기적이며 기조적인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계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등 두 가지의 근원인플레이션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 2018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공급측 요인의 하방압력과 보험서비스료 동결²⁶⁾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되어 전년동기 대비 1.3% 상승에 그침

■ 2018년 소비자물가는 세계경제 확장세 지속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원화 가치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으로 전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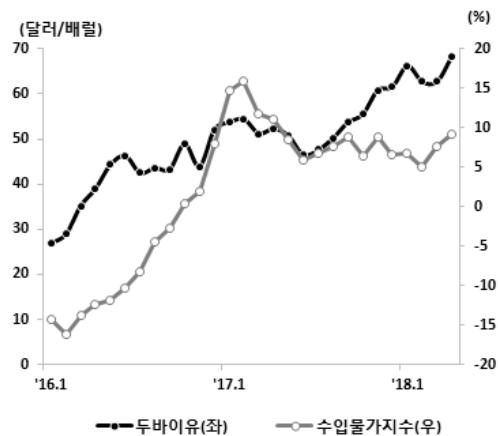
- 국제유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나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으로 공급측 상승압력 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10 물가상승률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1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자료: 한국은행

26)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상시기 연기(2017년 평균 인상률 19.5%)

〈대외거래〉

☒ 2017년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규모의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흑자규모가 축소된 7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2017년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반도체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0.8% 증가에 그친 1,1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선박·석유류 등 대부분 주력품목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8% 증가한 5,774억 달러를 기록함
 - 상품수입은 원유·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6.4% 증가한 4,575억 달러를 기록함
- 2017년 서비스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 해외건설 수주 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34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177억 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확대됨
- 2018년 1/4분기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34.8% 감소한 1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상품수지는 수출(7.5%)이 증가하였으나 수입(12.3%)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기보다 축소된 2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와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전년동기보다 확대된 9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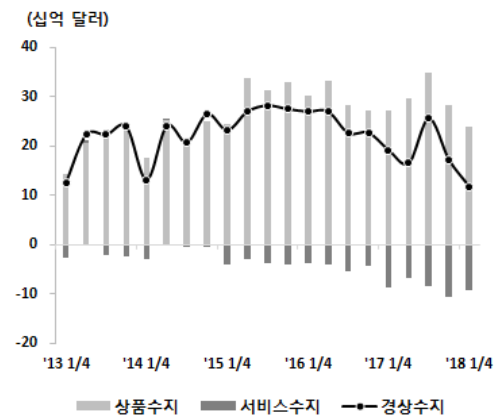
☒ 2018년 경상수지는 흑자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9.8% 감소한 70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 상품수지는 세계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6,319억 달러, 상품수입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5,16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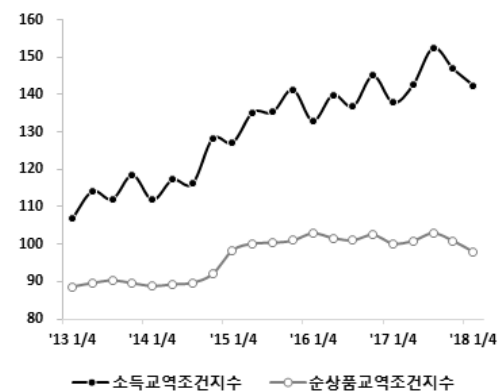
- 서비스수지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휴대폰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여행·지재권 사용료 수지가 개선²⁷⁾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운업계 침체로 인한 운송수지 적자 지속으로 4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I-12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3 교역조건지수



자료: 한국은행

3. 국내금융시장

〈금리〉

- 기준금리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2017년 3/4분기 성장률 상승 등에 따라 2017년 11월 1.25%에서 1.50%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27) 기획재정부(2017. 12), 「2018년 경제정책방향」

- 2017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세 지속,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 주요국 교역여건 개선 가능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
- 소비와 수출 증가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고용, 물가 상승여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5월 말까지 국채(3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평균 2.2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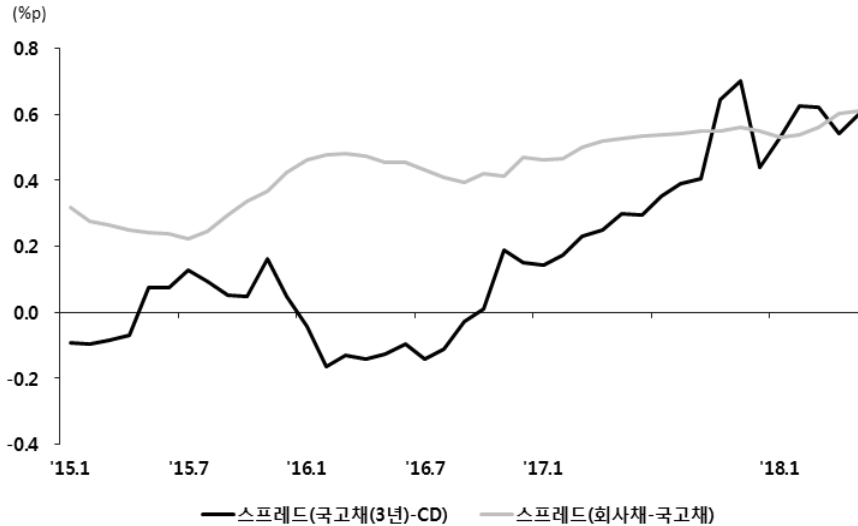
- 국채(3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2월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국채-CD)는 CD금리가 안정적인 가운데, 국채(3년)금리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변동하고 있음
- 신용스프레드(회사채-국채)는 회사채 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2018년 5월 61bp까지 확대됨

표 I-7 금리 추이

구분	'17. 11	12	'18. 1	2	3	4	5	'18. 1~5월 평균
CD(91일)	1.45	1.66	1.66	1.65	1.65	1.65	1.65	1.65
국채(3년)	2.15	2.10	2.19	2.28	2.27	2.19	2.25	2.24
회사채(3년, AA-)	2.71	2.65	2.72	2.82	2.83	2.79	2.86	2.80
스프레드(국채-CD)	0.70	0.44	0.53	0.63	0.62	0.54	0.60	0.59
스프레드(회사채-국채)	0.56	0.55	0.53	0.54	0.56	0.60	0.61	0.57

자료: 한국은행

■ 그림 I-14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2018년 국채(3년)금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2.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상반기 국내 국채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함
- 2018년 중 미국 기준금리는 경기회복세와 인플레이션 기대로 인해 두 차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국내 국채(3년)금리와 미국 국채(3년)금리의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표 < I -8> 참조)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8년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는 3.11%, 우리나라 국채(10년)과 국채(3년)의 금리는 각각 2.68%, 2.27%로 전망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하반기 미국 국채(10년)금리가 1~5월 평균 금리 수준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하반기 우리나라 국채(10년)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국채(3년)금리는 1~5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표 < I -9> 참조)

■ 표 I-8 한국 및 미국 국채(3년)금리 추이

(단위: %, %p)

구분	'17.10	11	12	'18.1	2	3	4	5
국채(3년)	2.03	2.15	2.10	2.19	2.28	2.27	2.19	2.25
미국국채(3년)	1.67	1.80	1.95	2.14	2.35	2.42	2.52	2.66
국채-미국국채	0.35	0.35	0.15	0.05	-0.07	-0.15	-0.33	-0.41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표 I-9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10년)금리		국내 국채(3년)금리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2.82	3.11	2.70	2.68	2.24	2.27

주: 2018년 하반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5월 초에서 6월 초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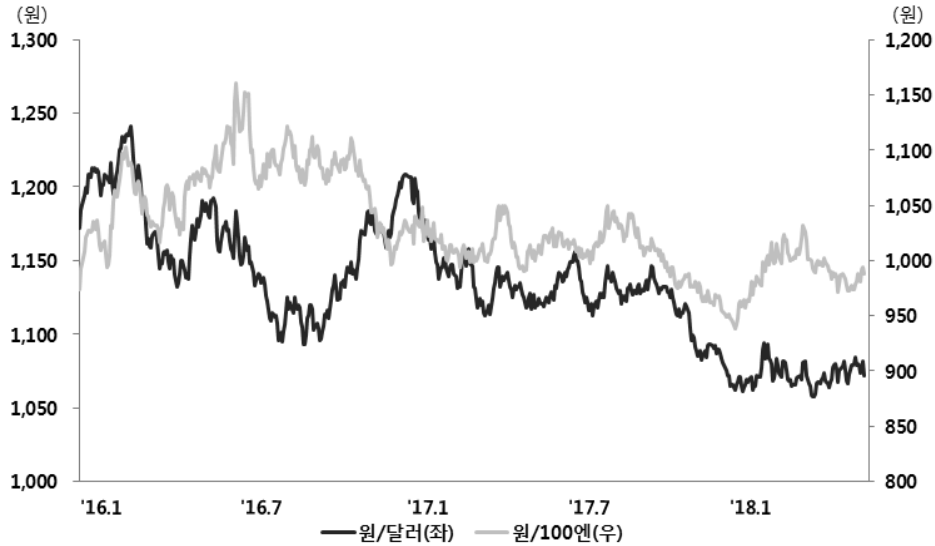
<환율>

■ 평균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한 신흥국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여 2018년 5월 말까지 1,072원을 기록함

● 2017년 1~5월 평균 원/달러 환율 1,145원에 비해 원화 강세를 유지함

■ 원/엔 환율은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원화 강세 등으로 2018년 1~5월 평균 100엔당 988원을 기록함

■그림 I-15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I-10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1~5월	하반기
Standard Chartered	1,072.16	1,032.5	108.44	113.0	1.22	1.25
JP Morgan		1,060.0		109.5		1.23
Barclays		1,045.0		104.0		1.22
Citi group		1,054.0		109.5		1.19
Morgan Stanley		1,047.5		107.0		1.19

주: 2018년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 환율은 5월 중순~5월 말 기준 전망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201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130.8원에서 54.7원 하락한 1,076.1원으로 예상됨

- 지정학적 리스크 축소와 더불어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1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을 국내외 경기회복세, 양호한 외환수급 상황 지속, 대외 신인도 제고 등에 따라 원화 강세를 예상함

■ 표 I-11 국내 금리 및 환율 전망¹⁾

(단위: %,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F) ²⁾
회사채(AA-) 금리	2.08	1.89	2.33	2.88
국채(3년)금리	1.79	1.44	1.80	2.30
원/달러 환율	1,131.5	1,160.5	1,130.8	1,076.1

주: 1) 기간 평균값

2) 2018(F)는 보험연구원 전망치임

II

보험시장

1. 보험산업 총괄

- 2017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0% 감소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및 퇴직연금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부진을 이어간 가운데 일반손해보험과 연금부문의 증가로 전년 대비 4.5% 증가함
- 2018년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는 2017년과 유사한 요인들이 심화되어 감소폭(-1.9%)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심화로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하락세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3.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표 II-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 전망 증가율
생명보험	119.8	2.2	114.0	-4.9	107.5	-5.7	0.3
손해보험	84.5	5.3	88.3	4.5	91.0	3.0	2.5
전체	204.3	3.5	202.3	-1.0	198.5	-1.9	1.2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 2018년 보험침투도²⁸⁾는 2017년보다 0.8%p 하락한 10.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생명보험 침투도는 2017년보다 0.7%p 하락한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보험 침투도도 5.0%로 2017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표 II-2 보험침투도¹⁾ 전망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F) ²⁾
생명보험	7.4	7.5	7.3	6.6	5.9
손해보험	5.2	5.1	5.2	5.1	5.0
전체	12.6	12.7	12.4	11.7	10.9

주: 1) 보험침투도=수입보험료/명목GDP

2)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8)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 Ratio)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의 비율인데, 한 국가의 보험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

■ 2018년 보험밀도²⁹⁾는 2017년에 비해 8만 9,000원이 감소한 384만 3,0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밀도는 각각 208만 1,000원, 176만 2,000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표 II-3 보험밀도¹⁾ 전망²⁾

(단위: 천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F) ³⁾
생명보험	2,193	2,316	2,338	2,215	2,081
손해보험	1,519	1,585	1,649	1,717	1,762
전체	3,712	3,901	3,987	3,932	3,843

주: 1) 보험밀도=수입보험료/총인구 수
 2)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 자료를 사용함
 3)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개요〉

■ 2017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저축성보험 및 퇴직연금의 감소로 전년 대비 4.9% 감소함

- 보장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정이율 변화로 인한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3.6% 증가에 그침
- 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29)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는 수입(원수)보험료를 총인구로 나눈 값으로 국민 1인당 지출하는 보험료를 나타냄. 보험밀도는 해당 국가의 보험산업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소극적 판매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 감소세가 심화되고, 변액저축성보험도 부진이 지속되어 8.9% 감소함

- 퇴직연금은 2016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계열회사 퇴직연금 유입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신계약 감소로 전년 대비 10.9% 감소함

■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부진과 저축성보험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2017년에 비해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종신보험 수요둔화로 2017년 증가율 3.6%에 비해 2.2%p 하락한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축성보험은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이 심화(-19.8%)되어 13.3% 감소할 전망임
 - 일반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세제혜택 축소 등으로 19.8%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은퇴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의 경쟁 심화, 상품경쟁력 약화 등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0월 전망에서 2018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0.3%로 전망하였으나, 최근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확대를 반영하여 증가율 전망치를 -5.7%로 하향 조정함

■ 표 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 전망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수정 전망	기존 전망
전체	1,172,137	6.0	1,198,112	2.2	1,139,735	-4.9	1,074,616	-5.7	0.3
(퇴직연금 제외)	1,035,146	4.8	1,030,861	-0.4	990,671	-3.9	921,489	-7.0	-0.6
보장성 ²⁾	377,794	9.2	402,894	6.6	417,592	3.6	423,518	1.4	2.8
저축성 ³⁾	649,618	2.6	620,348	-4.5	565,430	-8.9	490,374	-13.3	-3.0
일반저축성	460,620	4.5	442,573	-3.9	387,903	-12.4	310,916	-19.8	-7.0
변액저축성	188,998	-1.8	177,774	-5.9	177,526	-0.1	179,458	1.1	6.2
퇴직연금	136,990	15.9	167,252	22.1	149,064	-10.9	153,127	2.7	5.3
기타 ⁴⁾	7,735	-5.1	7,619	-1.5	7,649	0.4	7,598	-0.7	-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저축성보험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4)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장성보험³⁰⁾〉

■ 2017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제도 변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전년도 예정이율 변화로 인한 기저효과와 건강보험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에 그침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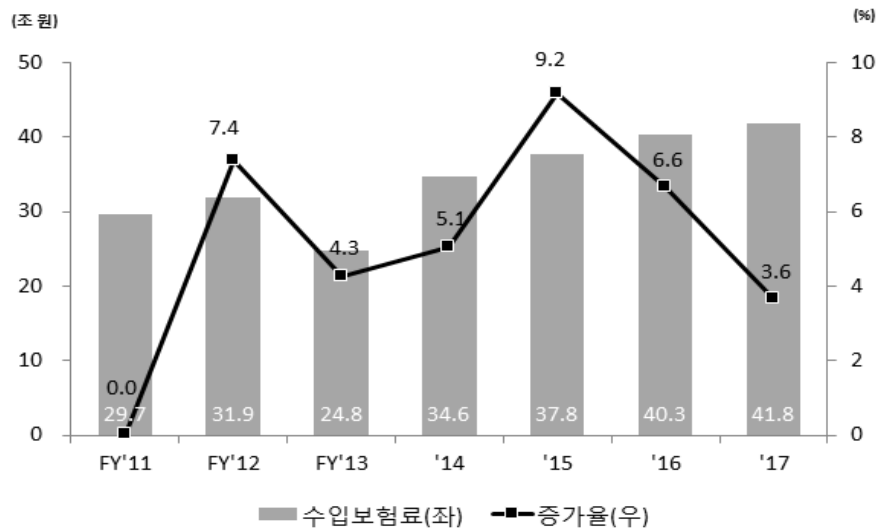
- 생명보험회사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상품판매 전략의 변화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속함

30)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으로 구성됨

31) 2017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3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2016년 4월 예정이율 인하에 대응한 적극적 마케팅으로 2015년 보장성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세가 둔화됨
- 질병보험의 경우 고령화 심화, 질병보장에 대한 니즈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추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보장성보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림 II-1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종신보험시장 포화로 인한 수요둔화로 2017년 증가율 3.6%에 비해 2.2%p 하락한 1.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³²⁾
- 생명보험회사들은 회계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보장성보험 중심의 영업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종신보험시장 포화로 신규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음

32) 2018년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39.4%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질병보험의 경우 고령화 심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들과 건강증진형 보험³³⁾ 출시로 관련 보험상품의 공급이 지속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치아보험, 미니보험 등 새로운 건강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중·저가의 보험료로 보장성보험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종신보험 신규수요 확대의 한계와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개선안으로 인해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1.4%로 하향 조정함

〈저축성보험³⁴⁾〉

-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세제혜택 축소³⁵⁾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등으로 일반저축성보험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변액저축성보험도 부진하여 8.9% 감소함³⁶⁾
 - 일반저축성보험은 세제혜택 축소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설계사 판매유인 감소, 2016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일반저축성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2.4% 감소함
 - 변액저축성보험³⁷⁾은 0.1% 감소하였지만,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주가지수 상승으로 인한 수요회복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는 크게 둔화됨
 - 국내 주가지수 상승 등 투자여건 개선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가함³⁸⁾

3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6. 7),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및 판매 동향”

34)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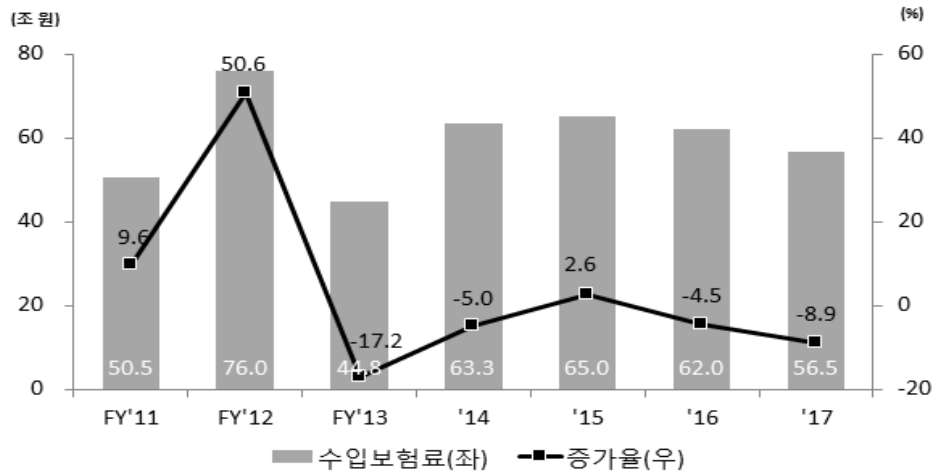
35) 2017년 4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 보험료 납입 유형에 따라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36) 2017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4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7)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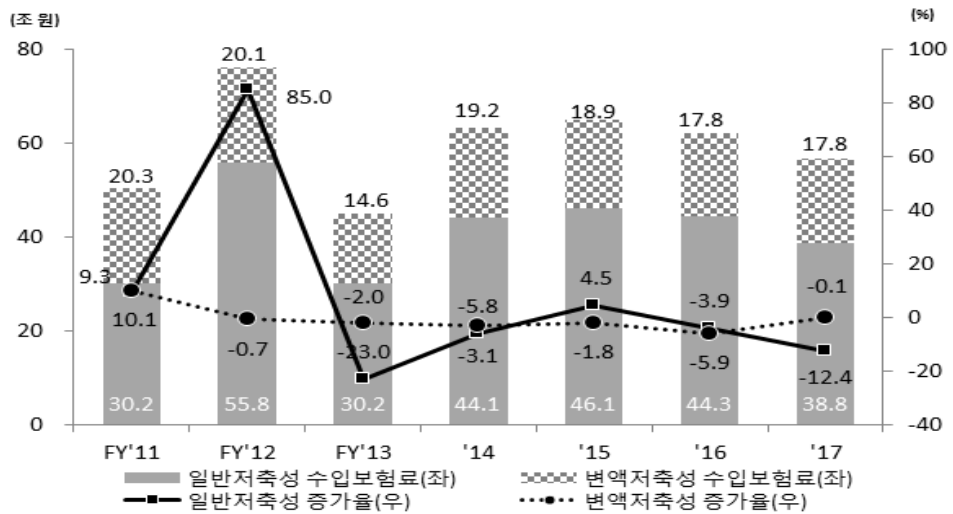
38) 2017년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초회보험료는 각각 81.8%, 25.8% 증가함

그림 II-2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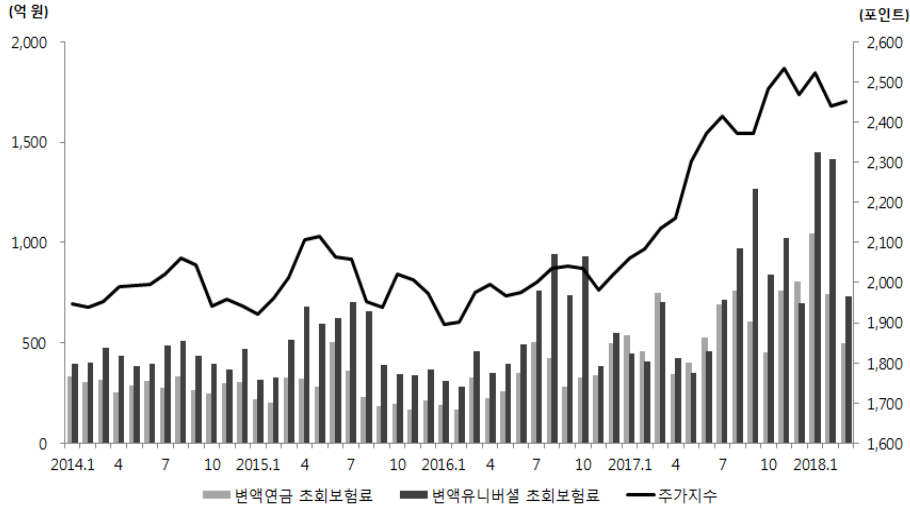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II-3 일반·변액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4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및 주가지수(월 기준)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거래소

■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부진 심화로 인해 2017년보다 감소세가 확대되어 1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³⁹⁾

- 일반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소극적 판매,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 등으로 2018년에 19.8%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 올해 들어 보험회사들이 금리 인상으로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을 인상하고 있지만,⁴⁰⁾ IFRS 17 도입을 앞두고 과거처럼 저축성보험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변액저축성보험은 보험회사들의 신상품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성장이 전망되나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39) 2018년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45.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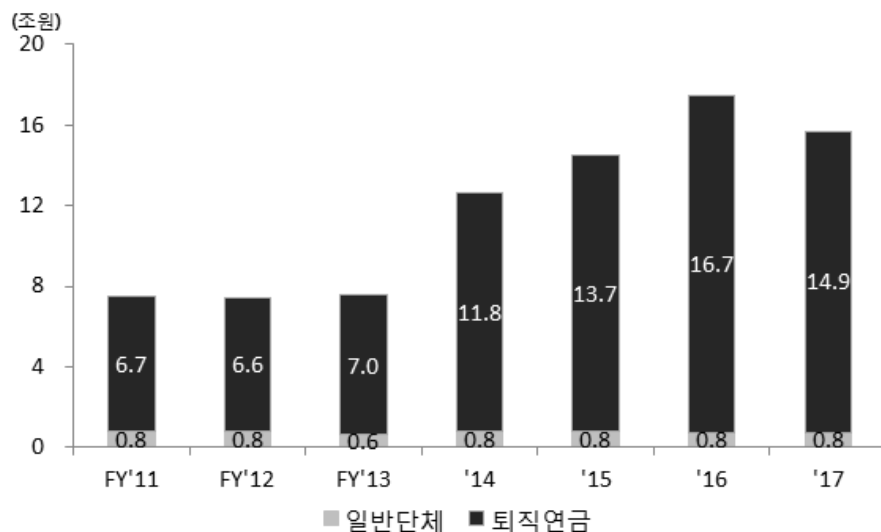
40) 2017년 12월 생보업계 평균 공시이율은 2.52%, 2018년 5월 평균 공시이율은 2.62%임

- 최근 보험회사들은 일반저축성보험의 대안으로 변액보험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변액보험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이 됨
- 기존 전망에서는 저축성보험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13.3% 감소할 것으로 수정 전망함

〈퇴직연금〉

- 2017년 퇴직연금은 전년도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계열회사 퇴직연금 유치로 인한 기저효과와 신계약 감소로 10.9% 감소함⁴¹⁾

■그림 II-5 단체보험(일반단체 및 퇴직연금¹⁾) 수입보험료



주: 1) 퇴직보험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41) 2017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13.1%의 비중을 차지함

-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원리금보장형 중심인 보험업권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여 신계약이 감소함
 - 한편,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한 기타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0.4% 증가함
-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은퇴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업권 간 경쟁 심화로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⁴²⁾
-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대기업의 퇴직연금 신규가입 수요는 제한적이고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경쟁심화로 보유계약 이탈 가능성이 있어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됨
 - 또한 하반기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의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⁴³⁾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판매 유인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일반단체보험 등 기타보험의 경우 특별한 성장요인이 없어 수입보험료는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보임
 - 기존 전망에서는 퇴직연금 증가율을 5.3% 전망하였으나, 퇴직연금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하여 2.7%로 하향 조정함

42) 2018년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체 수입보험료의 14.2%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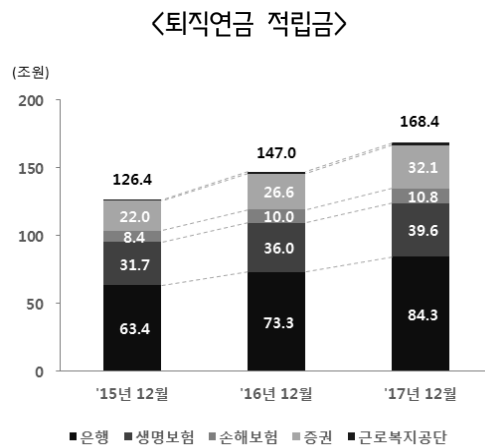
4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8. 28), “보험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Box 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비교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보험산업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이 타 권역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68조 4,348억 원으로 2016년 말 147조 297억 원에 비하여 14.6% 증가함
- 그러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은 각각 9.9%, 8.0%로 다른 권역(은행 15.1%, 증권 20.9%)에 비해 낮음
- 은퇴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하락 및 상품 다양성 부족 등으로 보험업권의 퇴직연금 상품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것으로 보임

Box 그림 및 표-1 금융업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및 증가율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은행	19.6	15.6	15.1
생명보험	14.2	13.5	9.9
손해보험	13.2	18.2	8.0
증권	20.2	20.7	20.9
전체	18.1	16.3	14.6

자료: 금융감독원

3. 손해보험

〈손해보험 개요〉

■ 2017년 손해보험⁴⁴⁾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일반손해보험 증가세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4.5% 증가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심화되어 2.8% 증가에 그침
- 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의 감소세가 심화되었으나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증가로 14.1%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2017년 하반기 대형 손해보험회사 중심의 요율 인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마일리지 보험 확산 등으로 2.8% 증가에 그침
- 일반손해보험은 화재보험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해상보험과 보증보험의 성장으로 4.8% 증가함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둔화와 장기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하반기에 예상되는 자동차 정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차량대수 증가세 둔화, 온라인보험 및 마일리지보험 확대, 요율 인하를 통한 경쟁심화 등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경쟁력 약화와 재무건전성 및 판매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 위축 지속, 상해·질병보험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4) 장기손해보험, 연금부문(개인연금, 퇴직연금),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상품경쟁력 약화와 금융업권 간 경쟁심화가 이어지면서 감소폭이 확대(-5.2%)될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2017년에 이은 은퇴시장 확대와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계열회사 퇴직연금 유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10.0% 수준의 성장이 예상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 및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과 이행보증을 중심으로 한 보증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전망치는 장기상해·질병보험과 일반 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하여 기존 전망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함
 - 다만, 대형사의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는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2018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조정됨

■ 표 II-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장기 손해 보험	합계	465,801	4.9	477,727	2.6	490,880	2.8	502,146	2.3	2.1
	상해·질병	243,162	14.0	271,537	11.7	296,606	9.2	320,038	7.9	5.6
	저축성	104,650	-11.0	82,488	-21.2	63,263	-23.3	44,284	-30.0	-24.0
	기타 ²⁾	117,988	4.2	123,703	4.8	131,011	5.9	137,824	5.2	6.4
연금 부문	합계	103,879	-0.9	118,160	13.7	134,764	14.1	142,608	5.8	1.8
	개인연금	40,211	-2.1	38,768	-3.6	37,007	-4.5	35,075	-5.2	-5.0
	퇴직연금 ³⁾	63,668	-0.1	79,392	24.7	97,757	23.1	107,533	10.0	5.0
	자동차	149,914	10.7	164,053	9.4	168,573	2.8	169,758	0.7	3.2
일반	합계	82,879	1.8	85,032	2.6	89,117	4.8	95,499	7.2	4.5

종목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손해 보험	화재	3,041	-2.1	3,011	-1.0	2,965	-1.5	2,995	1.0	-2.0
	해상	7,091	-3.4	6,080	-14.3	6,437	5.9	6,521	1.3	2.0
	보증	15,816	4.4	15,909	0.6	17,435	9.6	18,411	5.6	5.4
	특종 ⁴⁾	56,931	2.0	60,032	5.4	62,279	3.7	67,574	8.5	4.7
전체		802,473	4.8	844,972	5.3	883,334	4.5	910,011	3.0	2.5
(퇴직연금 제외)		738,804	5.2	765,580	3.6	785,581	2.6	802,478	2.2	2.3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3)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4) 특종보험(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 권원보험 등)에 해외원보험,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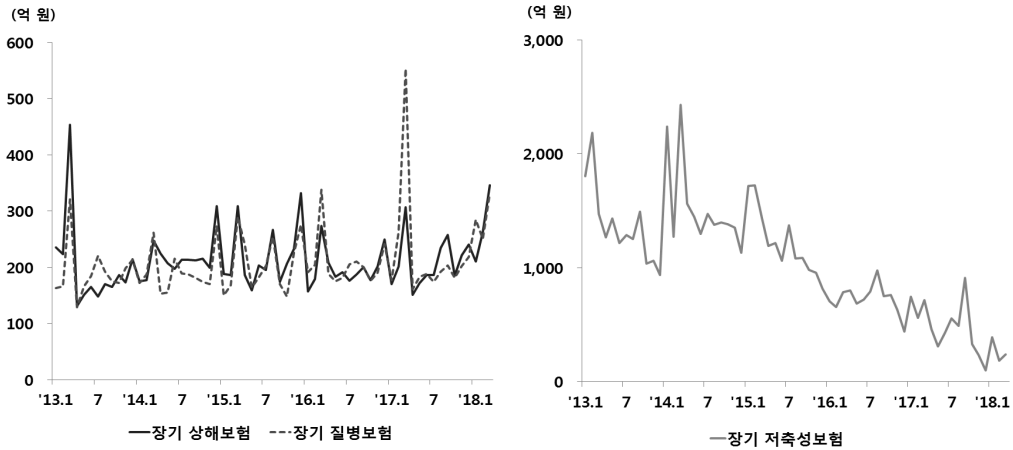
〈장기손해보험〉

■ 2017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감소세 심화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49조 880억 원을 기록함

- 장기상해보험과 장기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8.4%,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고령자·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 간편고지보험상품 판매 증가⁴⁵⁾ 등으로 장기상해·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9.2% 증가함
-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23.3% 감소함
 -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 공시이율 하락,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판매부담이 감소세 지속의 원인으로 보임

45)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6. 10. 15), “장기손해보험 고연령 보험가입률 증가 두드러져”

■그림 II-6 장기상해 및 질병, 장기저축성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장성 보험이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신상품에 의한 신규수요 확대와 계속보험료 성장이 이어지면서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장기상해·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실손의료보험의 보유계약이 증가하고 보험료도 인상되어⁴⁶⁾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감
 - 한편 고령자 및 유병자 대상 간편심사보험과 4월부터 판매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⁴⁷⁾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⁴⁸⁾ 등도 2018년 신규수요 확대 요인⁴⁹⁾임

46) 금융감독원(2018. 4. 16), “2017년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등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별로 2.8~32.8%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인상됨

47) 2018년 4월 1일부터 판매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4월 중 49,315건 판매되었고, 이는 동기간 판매된 일반실손의료보험(113,151건) 대비 43.6% 수준이었고, 1인당 보험료는 53,578원으로 일반실손보험 18,043원의 296.9% 수준임(금융위원회(2018. 5. 8),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1개월 간 판매 동향”)

48) 2005~2016년 한국의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6%로, 영국(4.2%), 미국(3.0%), 캐나다(2.3%), 일본(3.4%)과 큰 차이가 남(연합뉴스(2018. 5. 2),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연평균 6.8%…OECD 최고”)

49) 2018년 1/4분기 장기상해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7.9%, 장기질병보험은 10.2% 증가함

- 그러나 높은 가입률, 2017년부터 판매된 저렴한 신(新) 실손의료보험의 비중 확대 등은 성장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장기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위축과 보험회사의 건전성부담으로 인한 판매위축 등이 지속되면서 30.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신계약 지표로 볼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⁵⁰⁾되고 있음
 -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확대로 저축여력이 감소한 것이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보임
 - 또한 2017년 저축성보험 상품설계기준 변경,⁵¹⁾⁵²⁾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보장성 상품 중심의 판매 정책, 상품경쟁력 약화 등으로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임
- 기타장기손해보험 중 장기운전자보험과 장기재물보험은 손해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판매와 소비자의 관심이 지속되면서 2017년 각각 13.4%와 6.2% 성장했는데 2018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기타장기손해보험의 향후 만기 도래 계약의 갱신 가입 여부⁵³⁾는 성장세 제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단일 종목으로 가장 규모가 큰 통합형보험의 경우 2016년 2.6%, 2017년 1.1% 성장에 그쳤고 2018년⁵⁴⁾에도 전체 기타 장기손해보험 증가세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50) 장기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2015년 전년 대비 20.3%, 2016년 40.6%, 2017년 32.8% 감소함

51) 평균공시이율 기준 납입기간 완료 시점(최대 7년)에 환급률 100% 이상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함(2017년 1월 시행)에 따라 2018년에도 평균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사업비 인하가 불가피하며, 설계사의 판매유인 저하가 예상됨

52)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인 평균공시이율은 2016년 3.5%, 2017년 3.0%였으며, 2018년에는 0.5%p 하락한 2.5%가 적용됨

53) 운전자보험 및 재물보험의 해약률은 2016년 각각 11.7%, 12.9%, 2017년 각각 11.9%, 13.0%로 높은 수준임

54) 2018년 1/4분기는 7분기 만에 3.4%의 감소세를 시현함

- 2018년 장기손해보험과 관련된 경영환경은 2017년과 유사할 것이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함
 - 장기상해·질병보험 수요의 경우 계속보험료의 견조한 성장세와 신시장 개척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이 있음
 -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2018년 하반기 국내 시중금리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표 II-6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상해·질병	243,162	14.0	271,537	11.7	296,606	9.2	320,038	7.9	5.6
저축성	104,650	-11.0	82,488	-21.2	63,263	-23.3	44,284	-30.0	-24.0
기타 ²⁾	117,988	4.2	123,703	4.8	131,011	5.9	137,824	5.2	6.4
합계	465,801	4.9	477,727	2.6	490,880	2.8	502,146	2.3	2.1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기타에는 운전자, 재물, 통합형, 자산연계형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연금부문(개인 및 퇴직연금)〉

☒ 2017년 개인연금⁵⁵⁾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3조 7,007억 원을 기록함

- 가계처분가능소득 정체로 인한 저축여력 감소, 세제혜택 요건 강화,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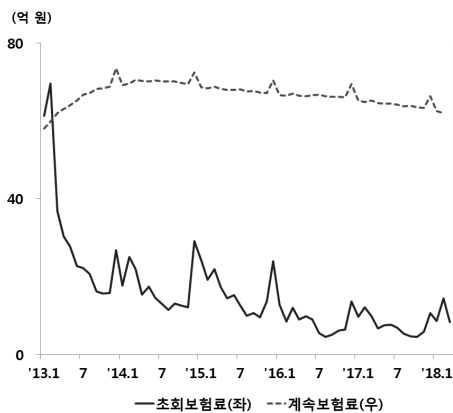
55)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상품을 연금저축이라하며, 손해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개인연금이 연금저축임

연금계좌(IRP) 시행에 따른 금융권 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확대됨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3.1% 증가한 9조 7,757억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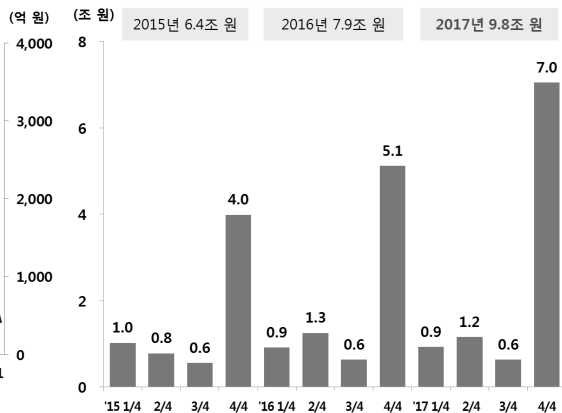
- 이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 확대(2017. 7. 26)⁵⁶⁾의 영향도 반영되었으나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판매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손해보험 퇴직연금시장이 성장하는 착시효과인 것으로 보임

■ 그림 II-7 개인연금 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그림 II-8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개인연금은 2012년 이후 초회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⁵⁷⁾ 계속보험료도 2016년 4.4% 그리고 2017년에도 4.9% 감소하여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56) 가입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됨

57) 초회보험료가 전년 대비 2015년 5.2%, 2016년 47.1%, 2017년 10.5% 하락함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금융권 간 경쟁심화 등으로 2018년에도 원수보험료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5.0%에서 -5.2%로 하향 조정함
 - 2018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 상품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으나 수요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2018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 퇴직연금 상품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은퇴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확대 요인으로 10% 성장할 전망이다

- 2017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가입대상 확대, 2018년 베이비붐 세대⁵⁸⁾의 은퇴 본격화 등이 시장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보험회사의 주요 시장인 대기업 퇴직연금 시장의 포화, 낮은 수익률⁵⁹⁾과 손해보험 상품 경쟁력 약화⁶⁰⁾ 등이 2018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계열회사 퇴직연금을 유치할 경우 성장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8년 퇴직연금 원수보험료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0%에서 10.0%로 수정함

58) 1차 베이비붐 세대는 55~63년생 세대로 인구의 14%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8년생이 2018년 60세에 도달하면서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59)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2017년 1.88%로 최근 5년 및 9년간 연환산수익률 2.39%, 3.29%에 최저 수준을 보임(금융감독원(2018. 3),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60) 2017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16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 퇴직연금 적립금은 10.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3% 감소하였으며, 비중도 6.8%에서 6.4%로 축소됨(금융감독원(2018. 3), “2017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 표 II-7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개인연금	40,211	-2.1	38,768	-3.6	37,007	-4.5	35,075	-5.2	-5.0
퇴직연금 ²⁾	63,668	-0.1	79,392	24.7	97,757	23.1	107,533	10.0	5.0
-퇴직연금 ³⁾	48,029	29.1	62,097	29.3	55,034	-11.4	-	-	-
합계	103,879	-0.9	118,160	13.7	134,764	14.1	142,608	5.8	1.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퇴직연금에는 퇴직보험이 포함됨

3)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 중 대형사를 제외한 퇴직연금 원수보험료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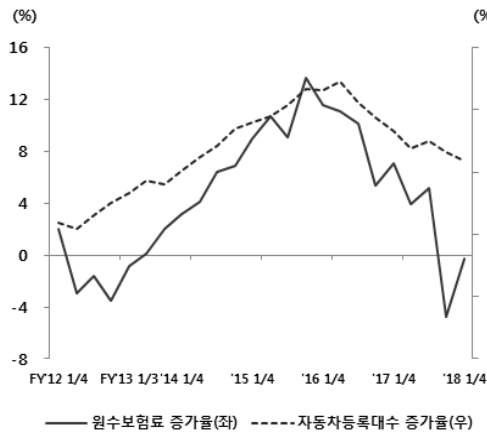
〈자동차보험〉

■ 2017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경쟁 심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16조 8,573억 원을 기록함

-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브랜드 파워, 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⁶¹⁾
- 인터넷, 모바일 이용 확산 등에 따른 온라인보험의 판매 증가, 마일리지보험 특약 가입 확대 등으로 원수보험료의 증가폭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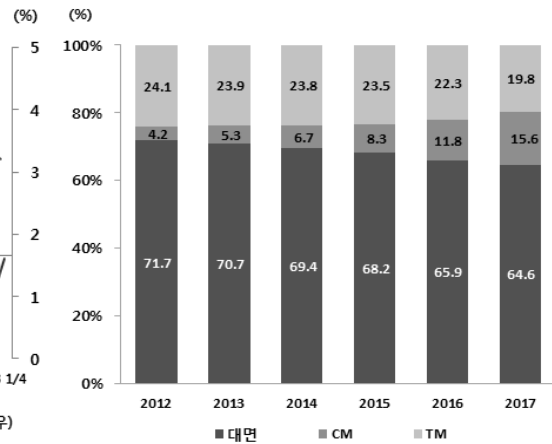
6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4. 18), “2017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및 시사점”

■그림 II-9 원수보험료/등록대수 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 보험개발원

■그림 II-10 채널별 자동차보험 판매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8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하반기 자동차 정비요금 상향 조정이 예상되지만 차량대수 증가세 둔화 지속, 2017년 요율 인하 효과 등으로 0.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2018년 1/4분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2%로 전년동기 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판매 정체⁶²⁾가 예상됨에 따라 증가세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당 보험료가 저렴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도 증가하면서 2018년 1/4분기 원수보험료는 0.4% 감소함
 - 한편, 2018년 1/4분기 손해율 악화에 따른 요율 인하 요인 소진도 가능하나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손해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진 마일리지 보험 판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62)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7. 12. 21)에 따르면 자동차 내수판매는 2016년 184만 대(-0.2%), 2017년 182만 대(-1.0%), 2018년 182만 대(0.0%)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예상되는 자동차 정비요금 상향 조정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⁶³⁾
-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2018년 자동차보험 전망치를 3.2%에서 0.7%로 하향 조정함

■ 표 II-8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자동차	149,914	10.7	164,053	9.4	168,573	2.8	169,758	0.7	3.2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일반손해보험〉

■ 2017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해상보험의 증가세 전환과 보증보험의 성장으로 4.8% 증가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신규수요 창출 부진, 손해율 안정에 따른 요율 인하 등으로 1.5% 감소함
 - 지진 및 건물화재·붕괴사고로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위주의 재산종합보험가입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속 및 세계 해운업계 불황 등이 해상보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기저 효과 등으로 5.9% 증가함

63) 국토교통부(2018. 6. 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에 따르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2016년 국내 건설수주 확대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수요 증가, 전세 수요 증가에 의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판매 증가 등으로 9.6% 증가함
 - 국내 건설수주는 2014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5~2016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⁶⁴⁾함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수요가 2017년 급증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전세금 반환보증료율 인하(2017. 2)⁶⁵⁾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3.0%)과 배상책임보험(6.4%)의 증가로 3.7% 증가함
 - 2017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단체상해보험 가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수요가 증가함

■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종보험과 보증보험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의 경우 2018년 들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화재보험은 낮은 손해율⁶⁶⁾로 인한 요율 인하와 해외로의 공장 이전, 그리고 타 보험으로의 이탈 지속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주택화재보험의 성장세⁶⁷⁾ 확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해상보험은 세계 무역량 증가 등으로 적하보험이 성장을 보이거나 선박보험의 회복 지연으로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조선 수주점유율 세계 1위 회복에 이어 2018년 5월⁶⁸⁾에도 전

6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11. 9), 『2018년 건설경기 전망』

65) 2017년 2월 아파트 기준 연간 전세보증금의 0.15%에서 0.128%로 인하됨

66) 2014년 55.4%, 2015년 49.8%, 2016년 56.5%, 2017년 48.0%를 기록함

67) 화재보험은 1/4분기 주택화재가 23.6% 성장하면서 5.1% 성장함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기록한 점이 긍정적 요인이나 실제 선박건조에 2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성장이 예상됨

- 보증보험은 2017년 건설수주 하락세 전환, 2018년 SOC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설수주물량의 이행보증 수요, 중금리 대출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⁶⁹⁾ 등의 신용보험 시장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5.6%의 성장이 전망됨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성장이 예상되어 8.5% 증가가 전망됨
 - 근재보험위주의 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및 여행관련 보험시장 확대 등이 증가⁷⁰⁾요인으로 작용⁷¹⁾하고 있음
 - 반면, 2017년 배상책임보험 의무화⁷²⁾ 및 담보확대⁷³⁾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 기업성보험 가격자유화 시행⁷⁴⁾으로 인한 요율경쟁 심화,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18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7.2%로 상향 조정함

68) 조선비즈(2018. 6. 12), “韓 조선업계, 5월 수주량 1위…전 세계 발주량 절반 이상 차지”

69) 2017년 6월 20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상품가입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보험가입이 용이해짐

70) 보증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017년 3/4분기 12.5%, 4/4분기 11.7%에 이어 2018년 1/4분기 16.8%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71) 2018년 1/4분기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4.4%, 상해보험 9.1%, 종합보험 7.4% 성장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9.1% 성장함

72) 2017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 여개 업소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했음

7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 개정(17. 4. 18 공포, 10. 19 시행)에 따라 특수건물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7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 6. 4),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이 촉진됩니다: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

■ 표 II-9 일반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억 원, %)

종목	2015		2016		2017		2018(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기존전망 증가율
화재	3,041	-2.1	3,011	-1.0	2,965	-1.5	2,995	1.0	-2.0
해상	7,091	-3.4	6,080	-14.3	6,437	5.9	6,521	1.3	2.0
보증	15,816	4.4	15,909	0.6	17,435	9.6	18,411	5.6	5.4
특종 ²⁾	56,931	2.0	60,032	5.4	62,279	3.7	67,573	8.5	4.7
합계	82,879	1.8	85,032	2.6	89,117	4.8	95,499	7.2	4.5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 부수사업,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저자약력

총 괄

전용식(연구위원)

경제·금융

해외경제 최예린(연구원)

국내경제 김유미(연구원)

국내금융 이해은(연구원)

보험산업

생명보험 김세중(연구위원)

이해은(연구원)

손해보험 김진역(수석담당역)

김유미(연구원)

CEO Report 2018-0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부록)

발 행 일	2018년 7월
발 행 인	한 기 정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 쇄 소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786 - 2999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
(☎3775-903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